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과의 관계

-광주지역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김경신[†] · 김정란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생활과학연구소

The Influence of Married M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on Their Marital Fun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yle

-Focusing on Married Men in Gwangju Area-

Kyeong-Shin Kim[†] · Jung-Ra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married men's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fluences on their marital func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yle.

The SPSS 10.0 for Windows was used to analyze data obtained through 412 married men who live in Gwangju.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arital function was different by the experience of abuse by parents and witness of father-to-mother abuse.
2. The conflict resolution style was different by the experience of abuse by parents and the witness of father-to-mother abuse.
3. The witness of father-to-mother abuse had the strongest impact on married men's marital function and their conflict resolution style .

As the result of the study, it concludes that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a marital relationship.

Key Words :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marital function, conflict resolution style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P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24, Fax : 062-530-1329
E-mail : kks@chonnam.ac.kr

1. 서론

1970년대에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은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주제로 등장하였고,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간 폭력 등 가정폭력의 유형 역시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이상의 폭력들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원가족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개인의 생애발달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는 등 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신체적인 문제, 심리·정서적인 문제, 사회 부적응 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폭력을 일종의 행동방식으로 유형화하여 대인관계에서나 가족 내에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 주고 있다(김광일, 1992; 김재엽, 1998; 안영희, 1998; 정준미, 이재연, 2000; Hotaling, Sugarman, 1986; Kalumss, 1984; Mable, 1996; O'Leary, 1993; Straus, 1983).

또한 가정폭력에 관한 Dutton(1995)의 연구에서 원가족에서의 초기 경험은 모델링 과정을 통한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아내학대 가해자가 지니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성격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으로부터 형성된 성격장애, 즉 분리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최초 대인관계에 대한 강력한 의존성 등과 높은 관련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생애 초기 부정적 경험은 개인의 자아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혹은 발달적 상처를 남게 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남성은 자신의 결혼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대적 부부관계를 유지한 부모세대를 보면서 성장한 남성은 인지의 영역에서 아내학대가 부부생활의 일부라는 왜곡된 신념

을 형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나 합리적인 갈등해결 방식을 학습하는 대신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갈등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아내를 학대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 성장기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성인을 대상으로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의 한 부분으로 폭력의 세대전이를 검증하는 소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성장한 성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장기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가정폭력 허용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이연복, 2001)가 한 편 발표되었을 뿐,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현재 가정생활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를 분석하여, 가정폭력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부부기능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이라 함은 아동기나 청소년기 동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본

인에게 행해지는 폭력피해의 직접적인 경험과 다른 구성원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관찰하거나 목격하는 간접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녀학대와 아내학대 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곽영숙, 홍강의, 1986; 김갑숙, 1993; 신혜섭, 2000; 양혜원, 전명희, 2001; 이경주, 신효식, 1998; 이해련, 최보가, 1999; 조미숙, 1999; Edleson, 1999; Fantuzzo, Mohr, 1999)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세대전이 연구(손정영, 1998; 안영희, 1998; Caesar, 1988; Corvo, Carpenter, 2000; Dutton, 1995; Foshee 등 1999; Hotaling, Sugarman, 1986; Markowitz, 2001)이다.

우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녀학대와 아내학대 목격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영향을 내재화(정서적), 외현화(행동적), 사회적 능력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김갑숙(1993)과 이해련 등(1999)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일수록 불안, 우울, 공격성 등이 높다고 하였으며, 곽영숙과 홍강의(1986)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며, 성격이 파괴적이고 반항적이며, 과도한 불안증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주와 신효식(1998)은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체적 학대는 사회적 위축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아내학대 목격 역시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미숙(1999)의 연구에서 공격행동, 우울과 불안, 비행행동, 학습수행 순으로 아내학대를 목격한 자녀집단과 그렇지 않은 자녀집단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양혜원과 전명희(2001)의 연구도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 목격경험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행동과 공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쉼터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혜섭(2000)의 연구에서 아내학대 노출아동들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사고의

문제, 우울 및 불안 등 내재화의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의 세대전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가 가정은 하나의 폭력훈련의 장으로써 기능하며, 성장기에 목격하거나 경험한 폭력은 성인이 되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력행위를 재현하도록 하는 초기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Hotaling과 Sugarman(1986)은 그들이 분석한 경험연구의 94%에서 남성들에게 있어 어머니에 대한 폭력목격과 자신의 파트너 폭력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폭력은 폭력적 가정에서 성장한 남성의 학습된 반응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안영희(1998)와 손정영(1998)은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성인남성의 아내학대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을 학대경험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폭력 목격경험을 학대목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

1) 부부기능

본 연구에서 부부기능이라 함은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부부는 가정에서 서로의 감정과 역할 및 생활의 목표에 관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을 감소시키게 되어,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순기능적 측면으로는 의사소통효율성을, 역기능적 측면으로는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사소통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김갑숙(1991)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에서 갈등이 높으며, 폭력 사용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콕, 타일랜드의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Hoffman 등(1994)의 연구에서도 사회인

구학적 변인, 남편의 스트레스, 부부 동료의식, 결혼 불안정성 등 기타 가족 관련 변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의사소통 비효율성이 아내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9)의 조사결과 역시 아내를 구타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아내와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는 각기 성장배경과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개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부부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증폭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궁극적으로 폭력이나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부부갈등 요인을 살펴보면, 김갑숙(1991)은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성격문제, 성문제, 의사소통문제, 자녀문제, 배우자 부정 문제, 시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로 분류하였으며, 김정옥(1993)의 연구에서는 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간에 갈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성관계 및 불신', '사회적 활동 및 경제', '성적인 문제', '가족에 대한 소홀 및 시가식구들의 간섭', '권위주의 및 독단적 처리', '자녀양육 및 낮은 귀가'의 영역에서 폭력가정이 비폭력가정보다 갈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은 부부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많으며, 언쟁과 부부간의 불일치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폭력을 수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Noller, Fitzpatrick, 1990; Shupe, Stacey, & Hazelwood, 1987).

또한 Carlson(1984)은 갈등은 누적되는 방식으로 기능하여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폭력 발생률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Lloyd(1990)의 구조화된 인터뷰 수행과정에서, 폭력적인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갈등을 보고하여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2) 갈등해결방식

부부관계에서는 갈등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부가 갈등상황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때 부부관계는 향상되지만, 회피적이거나 파괴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할 때 그 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

더욱이 부부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부간의 폭력으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권력대결의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갈등해결 유형으로 심리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Rosenbaum과 O'Leary(1981)의 폭력적인 부부와 비폭력적인 부부간 비교연구에서 부부갈등은 학대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0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Sugarman과 Hotaling(1989)의 연구에서도 폭력적인 남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부부갈등을 보고하였다.

Straus(1979)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논의 또는 해결할 정보나 다른 중재자를 찾는 이성적 해결(resoning), 배우자에게 상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는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육체적인 힘이나 완력을 사용하는 폭력(violence)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1979)의 갈등대처 분류를 기초로 이성적 해결을 의미하는 합리적 대처와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 학대를 의미하는 아내학대 행동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혼남성의 갈등해결방식을 측정하였다.

3.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 기능 및 갈등해결방식

전술하였듯이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성인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라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행되어온 연구결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ul(1996)의 연구에서 남성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능력이 부족할수록 갈등상황

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는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언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인 부부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아내학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들일수록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폭력적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폭력의 부정적 결과보다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관찰하였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폭력에 대한 긍정적 결과예측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기에 폭력을 경험하였을 경우 성장한 후에 자신들도 가족간에 발생하는 유사한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김갑숙(1991)의 연구에서 남성의 학대경험은 부부갈등요인 중 성격문제와 시가족 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부부갈등 발생 시 남성의 언쟁행동이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영희(1998)는 어머니에 대한 폭력목격 경험은 언어·상징적 폭력, 위협·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손정영(1998)의 연구에서는 폭력 당한 경험은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관찰 경험은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정란(2000)이 실시한 아내학대 실태 및 원인분석 연구에서 기혼 남성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갈등에 대한 합리적 대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내학대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더불어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남편의 아내학대 행동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재엽, 1998; 김정란, 2000; 안영희, 1998; Hotaling, Sugarman, 1986).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기혼남성의 부부기능과 갈등해결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 월 평균 소득, 혼인지속기간과 평균 결혼연령 등을 알아보았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12)

변 인	구 분	명(%)	변 인	구 분	명(%)
연 령	20대	6(1.5)	직 업	기능·기술직	63(15.3)
	30대	117(28.4)		농·어업	5(1.2)
	40대	218(52.9)		단순노무직	4(1.0)
	50대 이상	71(17.2)		사무직	95(23.1)
	평 균	42.96(6.85)		서비스·판매직	10(2.4)
학 령	초졸 이하	6(1.5)		자영업	53(12.9)
	중졸	7(1.7)		전문직	176(42.7)
	고졸	106(25.7)		무직	6(1.5)
	대졸 이상	293(71.1)			
소 득	100만원 이하	19(4.6)		혼인지속 기 간	10년 미만
	101만원-200만원	148(35.9)	20년 미만		235(57.5)
	201만원-300만원	133(32.3)	20년 이상		88(21.5)
	301만원 이상	112(27.2)	평 균		14.81(6.76)
	평 균	279.74(141.10)	결혼연령	평 균	28.54(3.01)

2)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자신에게 행한 폭력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회상하여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학대경험을 묻는 2문항은 Cronbach's $\alpha = .79$, 학대목격을 묻는 2문항은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3) 부부기능

부부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효율성과 부부갈등을 측정하였는데, 의사소통효율성 척도는 B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 중 기능적 의사소통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부부갈등 척도는 김갑숙(1991)의 부부갈등척도 중 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갈등의 경우 갈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효율성과 부부갈등 모두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4) 갈등해결방식

부부갈등해결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Straus 등(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번안,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CTS2는 갈등이론에 기초하여 가정폭력을 측정하는 CTS1을 보완한 것으로 협상(6문항), 심리적 폭력(6문항), 신체적 폭력(8문항), 성적 폭력(7문항), 상해(6문항) 등 다섯 영역(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해를 제외한 4개의 하위척도(총 33문항 중 22문항)를 사용하여 갈등해결방식을 합리적 대처와 아내학대 행동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협상의 경우, CTS1의 이성적 해결이 명칭변경된 것으로 정서적 협상과 인지적 협상을 포함하고 있어 갈등에 대한 합리적 대처 척도로 사용하는데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합리적 대처 측정은 협상을 이용하였으며, 아내학대 측정은 심리적 폭

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척도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합리적 대처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학대행동은 지난 1년간 자신이 아내에게 행한 심리적 학대 6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성적 학대 4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학대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합리적 대처 Cronbach's $\alpha = .90$, 심리적 학대 Cronbach's $\alpha = .86$, 신체적 학대 Cronbach's $\alpha = .91$, 성적 학대 Cronbach's $\alpha = .78$ 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1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광주지역의 기혼남성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0년 10월 기혼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무작위 배포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수집결과 445부가 회수되었는데,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412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 10.0을 활용하여 Cronbach's α , 기초통계,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의 일반적 경향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

면,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경우 자신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학대를 목격한 경험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기능의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은 중간점수인 3점 이상을, 부부갈등은 3점 이하를 나타내었다. 갈등해결방식의 경우, 합리적 대처는 3.81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아내학대 행동은 모두 중간점수인 3점 이하에 못 미쳤다.

〈표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균(표준편차)	변 인	평균(표준편차)
학대경험	2.10(0.79)	합리적 대처	3.81(0.84)
학대목격	1.80(0.76)	심리적 학대	1.64(0.54)
의사소통 효율성	3.56(0.76)	신체적 학대	1.20(0.40)
부부갈등	2.26(0.76)	성 적 학대	1.30(0.45)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부부기능의 차이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부부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3〉 사회 인구학적

〈표 3〉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부부기능의 차이

	변 인	구 분	수	의사소통효율성		부 부 갈 등	
				Mean	D	Mean	D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인	연 령	30대 이하	123	3.77	A	2.12	
		40대	218	3.45	B	2.32	
		50대 이상	71	3.52	B	2.32	
		F		7.12**		3.11*	
	교 육 준 수	고졸 이하	119	3.44		2.42	
		대졸 이상	293	3.61		2.19	
		T		-2.01*		2.75**	
	소 득	150만원 이하	60	3.42		2.46	A
		300만원 이하	240	3.59		2.26	AB
		301만원 이상	112	3.57		2.15	B
		F		1.17		3.19*	
	직 업	단순직	78	3.37	B	2.33	AB
서비스직		63	3.41	B	2.52	A	
사무직		95	3.51	AB	2.26	B	
전문직		176	3.72	A	2.13	B	
F			5.47**		4.46**		
혼 인 기 간	10년 미만	86	3.77	A	2.12		
	20년 미만	235	3.63	AB	2.28		
	20년 이상	88	3.46	B	2.31		
	F		5.80**		1.69		
가 정 폭 력 노 출	학 대 경 험	없는 집단	75	3.58		2.05	B
		중간 집단	194	3.56		2.25	A
		많은 집단	143	3.55		2.38	A
		F		.05		4.84**	
	학 대 목 격	없는 집단	146	3.72	A	2.09	B
		중간 집단	49	3.61	AB	2.14	B
		많은 집단	217	3.44	B	2.40	A
		F		6.51**		7.94***	

*p<.05 **p<.01 ***p<.001

변인에 따라 기혼남성의 의사소통 효율성이나 부부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남성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낮았으며, 대졸이상 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은 높은 반면, 부부갈등은 낮았다. 그리고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부부갈등이 가장 낮았으며, 전문직 남성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은 높았고, 서비스직 남성들이 부부갈등을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연령과 관련이 있는 혼인기간 역시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한 남성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본인의 학대경험의 경우, 부부갈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p<.01$),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이 부부갈등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효율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학대목적의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p<.01$)과 부부갈등($p<.001$)에 차이를 보였는데, 학대목적 경험이 많은 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은 낮은 반면, 부부갈등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남성의 의사소통 효율성에 차이를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결과는 Paul(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폭력노출 경험이 많은 남성일수록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은 남성일수록 부부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서 폭력적 가정 내에서 아내학대, 자녀학대와 같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격하고 성장한 남성의 경우,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법을 학습하지 못하여 자신이 부부갈등 상황에 처할 시 갈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증가하고 악순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 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기혼남성의 갈등해결방식은 차이를 보였는데, 30대 이하 남성집단과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인 집단이 합리적 대처를 많이 하고, 심리적 학대는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월 평균소득이 150만원 이하의 남성이 합리적 대처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심리적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성적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졸이상의 남성집단이 합리적 대처를 많이 하고, 심리적·신체적 학대는 적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남성이 갈등상황에서 합리적 대처를 많이 하는 반면, 아내학대 행동은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아내학대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김재엽, 1998; 김정관, 2000; 안영희, 1998; Hotaling, Sugarman, 1986)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회계층이 낮은 가정 내 아내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의 학대경험의 경우, 합리적 대처($p<.01$)와 아내학대 행동 모두에 차이를 보였는데,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이 갈등상황에서 합리적 대처를 많이 하는 반면, 학대경험이 많은 집단이 심리적($p<.001$), 신체적($p<.001$), 성적($p<.05$) 학대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학대목적의 경우 역시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

변인	구분	수	합리적 대처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Mean	D	Mean	D	Mean	D	Mean	D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	30대 이하	123	4.01	A	1.49	B	1.14		1.22	
		40대	218	3.68	B	1.70	A	1.22		1.34	
		50대 이상	71	3.84	AB	1.72	A	1.24		1.33	
		F		6.34**		7.43**		2.11		2.88	
	교육수준	고졸 이하	119	3.56		1.77		1.29		1.33	
		대졸 이상	293	3.91		1.59		1.17		1.29	
	T		-3.56***		2.93**		2.71**		.73		
	소득	150만원 이하	60	3.59	B	1.81	A	1.28	A	1.28	
		300만원 이하	240	3.79	AB	1.66	B	1.21	AB	1.31	
		301만원 이상	112	3.96	A	1.52	B	1.15	B	1.30	
		F		3.96*		6.14**		2.32		.10	
	직업	단순직	78	3.66	B	1.72	A	1.27	AB	1.31	AB
서비스직		63	3.60	B	1.81	A	1.34	A	1.37	AB	
사무직		95	3.75	AB	1.65	AB	1.21	BC	1.39	A	
전문직		176	3.98	A	1.54	B	1.12	C	1.24	B	
F			5.00**		4.61**		5.77**		2.91*		
혼인기간	10년 미만	86	4.03	A	1.50	B	1.15		1.22		
	20년 미만	235	3.70	B	1.69	A	1.21		1.33		
	20년 이상	88	3.88	AB	1.66	A	1.22		1.32		
	F		5.30**		4.02*		.81		2.19		
가정폭력 노출 경험	집단	없음	75	4.08	A	1.43	C	1.08	B	1.21	B
		중간	194	3.77	B	1.60	B	1.17	B	1.28	AB
		많은	143	3.72	B	1.81	A	1.30	A	1.39	A
		F		4.97**		13.16***		8.55***		4.60*	
	목적	없음	146	4.07	A	1.44	B	1.09	B	1.19	B
중간	49	3.67	B	1.64	A	1.15	B	1.32	AB		
많은	217	3.67	B	1.78	A	1.29	A	1.38	A		
F		11.58***		17.87***		12.24***		7.75***			

*p<.05 **p<.01 ***p<.001

이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갈등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갑숙, 1991; 김정란, 2000; 안영희, 199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4.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력

1)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관계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간의 상관관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혼인기간	학대경험	학대목적	의사소통	부부갈등	합리적대처	심리적학대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연령												
교육수준	-.09											
소득	.13**	.27***										
혼인기간	.88***	-.20***	.06									
학대경험	-.01	-.12*	-.05	.00								
학대목적	.01	-.00	-.03	.01	.48***							
의사소통	-.11*	.09	.02	-.08	-.01	-.17***						
부부갈등	.10*	-.10*	-.13*	.10	.16***	.20***	-.35***					
합리적대처	-.05	.20***	.10*	-.09	-.12*	-.22***	.33***	-.36***				
심리적학대	.10*	-.15**	-.14**	.11*	.27***	.36***	-.30***	.47***	-.61***			
신체적학대	.04	-.14**	-.09	.06	.23***	.29***	-.34***	.42***	-.52***	.67***		
성적학대	.08	-.02	.00	.08	.20***	.25***	-.18***	.27***	-.36***	.44***	.54***	

*p<.05 **p<.01 ***p<.001

우선 관련 변인들과 부부기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효율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연령($r = -.11, p < .05$)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학대목적($r = -.17, p < .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부갈등의 경우는 혼인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중 학대목적($r = .20, p < .001$)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갈등해결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연령($r = .10, p < .05$), 교육수준($r = -.15, p < .01$), 소득($r = -.14, p < .01$), 혼인기간($r = .11, p < .05$) 등 모든 변인이 갈등상황에서 초래되는 심리적 학대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본인의 학대경험의 경우, 의사소통 효율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

니에 대한 학대목적의 경우는 모든 관련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학대 경험($r = .27, p < .001$)과 학대 목적($r = .36, p < .001$) 모두 갈등해결 방식 중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관련 변인 중 성장기 어머니에 대한 학대목적이 기혼남성의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게 있어 원가족에서의 아내학대 목적 경험이 이후 본인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의미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진단 결과, 변인간 상관관계가 .48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확대인자(VIF)는 1.01-1.29의 범위로 모두 10이하로 산출되었으며, Durbin Watson 계수(DW) 역시 1.65-1.99의 범위

로 2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자료의 회귀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6> 첫째, 의사소통 효율성의 경우, 학대목격($\beta = -.16$)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체 분산 설명력은 3%였다.

<표 6>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부 부 기 능	의사소통 효율성 (DW = 1.99)	교육수준	.10	.07
		혼인기간	-.01	-.06
		학대목격	-.16	-.16**
		F	4.93**	
	R ²	.03		
	부부갈등 (DW = 1.98)	나이	.01	.11*
교육수준		-.06	-.05	
소득		-.00	-.12*	
학대경험		.07	.07	
학대목격		.16	.16**	
F	6.63***			
R ²	.06			
갈 등 해 결 방 식	합리적 대처 (DW = 1.78)	교육수준	.25	.18***
		소득	.00	.05
		학대경험	.01	.01
		학대목격	-.24	-.22***
	F	9.53***		
	R ²	.08		
	심리적 학대 (DW = 1.65)	나이	.01	.11*
		교육수준	-.09	-.10*
		소득	-.00	-.11*
		학대경험	.08	.11*
		학대목격	.22	.31***
	F	18.03***		
R ²	.17			
신체적 학대 (DW = 1.83)	교육수준	-.09	-.13**	
	학대경험	.05	.09	
	학대목격	.13	.25**	
F	17.29***			
R ²	.11			
성적 학대 (DW = 1.88)	학대경험	.06	.10*	
	학대목격	.12	.21***	
	F	15.69***		
R ²	.07			

*p<.05 **p<.01 ***p<.001

둘째, 부부갈등에는 본인의 연령($\beta = .11$), 소득($\beta = -.12$), 학대목격($\beta = .16$)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6%였다. 셋째, 합리적 갈등대처의 경우는 교육수준(β

=.18)과 학대목적($\beta = -.22$)이 의미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산 설명력은 8%였다. 넷째, 심리적 학대행동에는 연령($\beta = .11$), 교육수준($\beta = -.10$), 소득($\beta = -.11$), 학대경험($\beta = .11$), 학대목적($\beta = .31$) 등 모든 독립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설명력은 17%였다. 다섯째, 신체적 학대행동의 경우 교육수준($\beta = -.13$)과 학대목적($\beta = .25$)이 의미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 설명력은 11%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학대행동의 경우는 학대경험($\beta = .10$)과 학대목적($\beta = .21$)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전체 분산 설명력은 7%였다.

결과적으로 독립변인들 중 성장기 학대목적이 부부기능과 갈등해결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부부기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인의 학대경험의 경우, 학대경험이 없는 집단이 부부갈등을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학대목적의 경우, 학대목적 경험이 많은 집단이 의사소통 효율성이 낮고, 부부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적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남성의 경우,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학습할 기회가 일반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해석된다.

둘째,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은 집단이 부부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대처는 가장 적게 하고, 아내학대 행동은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학대가 폭력적 가정에서 성

장한 남성의 학습된 반응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모델링과정을 거쳐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폭력의 도구화를 학습하게 되어,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성인기 아내학대 행동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들 중 성장기 학대목적이 부부기능과 갈등해결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적 부부관계를 유지한 부모세대를 보면서 성장한 남성의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나 합리적인 갈등해결 방식보다는 아내학대 행동을 학습하게 되어 역기능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아내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근거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기혼남성의 부부기능 및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개입프로그램은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폭력적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후에 자신들도 부부간에 발생하는 유사한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폭력이 갈등해결 수단이며, 아내학대는 부부생활의 일부라는 왜곡된 신념체계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적극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학대목적이 부부기능과 갈등해결방식에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학대목적 노출의 피해가 세대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내학대에 대한 연구와 정책 및 개입프로그램 등에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대 피해아동들은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아동들 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신속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의 발달과정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내학대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보다 다각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의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모델링된다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모의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 방식, 특히 갈등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영숙, 홍강의(1986).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5: 37-52.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박사논문.
- 김갑숙(1993). 자녀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1): 85-100.
- 김광일(1992).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김광일 편,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 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87-114.
- 김정란(2000). 아내학대 실태 및 원인분석. **광주여성의회전화 개소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14-40.
- 김정옥(1993).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인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1(2): 27-40.
- 손정영(1998). 아내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 67-85.
- 안영희(1998).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경험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박사논문.
- 양혜원, 전명희(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6-7: 127-152.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주, 신호식(1998).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 유형과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39-50.
- 이연복(2001). 대전·충청지역 여성들의 성장기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가정폭력의 허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6-7: 180-211.
- 이혜련, 최보가(199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 75-85.
- 정준미, 이재연(2000).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아동학회지** 21(1): 85-98.
-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Bienvenu, M.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6-31.
- Caesar, E.(1988). exposure to violence in the families of origin among wife abuser and maritally nonviolent men. *Violence and Victim* 3: 49-63.
- Carlson, B.E.(1984). Causes and Maintenance of Domestic Violence: An Ecological Analysis. *Social Service Review* 58: 569-587.
- Corvo, K., Carpenter, E.H.(2000). Effects of parental substance abuse on current levels of domestic violence: A possible elaboration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2): 123-135.

- Dutton, D.G.(1995). *The Domestic Assault of Wome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Edleson, J.(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 Personal Violence* 2: 287-291.
- Fantuzzo, J., Mohr, W.(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Domestic Violence and Children* 9(3): 21-32.
- Foshee, V.A., Bauman, K.E., Linder, G.F.(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 331-342.
- Henning, K., Leitenberg, H., Coffey, P., Turner, T., Bennett, R.T.(1996). Long-term psychological and impact of witnessing physical conflict between par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1): 35-51.
- Hoffman, K.L., Demo, D.H., Edwards, J.N.(1994). physical wife abuse in a non-western society: an 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31-146.
- Hotaling, G.T., Sugarman, D.B.(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Kalumss(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6: 11-19.
- Lloyd, S.A.(1990). Conflict types and strategies in violent marriag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269-284.
- Mable, M.(1996). Early family experiences linked to abusive male personality. *Women's Health Weekly*, Date 15, Month 7, 9-10.
- Markowitz, F.E.(2001). Attitudes and family violence: Linking intergenerational and cultural theor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2): 205-218.
- Noller, P., Fitzpatrick, M.A.(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32-843.
- O'Leary, K.D.(1993). Through a psychological lens: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disorders, and levels of violence. In Gelles, R.J., Loseke, D.R.,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Pub.
- Paul, Y.(1996). Affective orientations of perpetrators, victims, and functional spous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2): 141-161.
- Rosenbaum, A., O'Leary, K.D.(1981). Marital Violence : Husband-abuse or Self-defen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63-71.
- Shupe, A., Stacey, W., Hazelwood, L.(1987). *Violent men, violent couples*. Lexington, MA, D. C. Heath.
-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A.(1983). Ordinary violence, child abuse, and wife-beating. In finkelhor, D., Gelles, R.J., Hotaling, G.T., Straus, M.A.,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
-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S.,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B., Hotaling, G.T.(1989). Violen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1034-1048.